

## 얼음 깨기

## '사랑'

## 교회행사

여러분은 이유 없이 웃어 본 적이 있나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당신의 이유였습니다. 생각만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굳이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 우리는 이런 상태를 '사랑에 빠졌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랑에 빠져 보셨나요? 오늘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사랑 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란 걸 잊지 마세요.

1. 사랑은 0000다. 사랑을 나의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2.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 3월

|        |                                      |
|--------|--------------------------------------|
| 3일     | 목장 모임 시작<br>성례식                      |
| 17일    |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br>종려 주일          |
| 24일    | (성찬식)                                |
| 25-30일 |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br>“나를 믿는 자는<br>죽어도 살겠고” |
| 31일    | 부활 주일                                |

## 경배 찬양

## 그 사랑

## 선교

## [과미정 선교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 기니비시우

1. 매 주마다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2. 말라리아의 위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사할 수 있도록

## 교회 소식

## 한문장 큰 울림

1. **목장 모임 시작** 3월 3일 주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함께 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 하늘 가족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2. **진실한 공동체를 향한 첫걸음 과정 2기**
  - 시작: 4월 17일 주간부터 12주
  - 내용: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3주), 풍성한 삶의 첫 걸음(5주), 더가족 세미나(4주)
  - 대상: 마을장, 목자 및 향존직(3기부터 전교인 대상)
  - 문의: 각 지역 담당 사역자
3.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회**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 일시: 3/25~3/30, 시간: 6시 \* 5:50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 장소: 3층 레위의 장막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에 있다.

- 존 오트버그 -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막 12:30)

구약에 나오는 계명의 수는 613개이다. 이 중에서 “~하라”는 긍정 계명이 248개, “~하지 마라”는 금지 계명이 365개이다. 서기관들에게 613개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인지 늘 논란이 많았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랍비 힐렐은 “네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를, 랍비 아키바는 “네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를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뽑았다. 본문의 서기관은 이같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란 “가장 중요한 계명”이란 뜻이며, 모든 계명을 떠받치는 근본이 되는 계명이며, 핵심이 되는 계명이라는 뜻이다. 또한 어떤 계명을 제대로 실천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계명이라는 말이다.

[나눔] 나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말씀(또는 한 문장, 좌우명)이 있는가?

### 하나님 사랑(29-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막 12:29-30)”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마음은 바로 사람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고 벗어날 때 다시 원점을 찾게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원점이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원점에 다른 어떤 것을 올려 놓는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원점을 확인하는 일이다. 원점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내려 놓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일부분만을 사용해서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온 존재를 다하여 드리는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나눔] 나는 한 주간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나요?

[나눔] 나는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나요?

### 이웃 사랑(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31절)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만큼 그 사랑은 이웃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주님은 두 계명을 하나의 계명처럼 결론짓는다. 특히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31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신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다.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은 모든 계명이 이 계명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강조하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완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율법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온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토라, 제사 예배,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을 토라와 제사 위에 놓는 정도가 아니라 토라와 제사를 사랑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나눔] 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최근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본 경험을 나눠 주세요.

### 지혜로운 서기관

주님은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시고 “지혜롭다”고 하셨다(34절). 왜 그러셨을까? 서기관의 대답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다. 즉, 서기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지혜롭다고 평가하신 것이다. 또한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전 제사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주님은 이 점을 높이 사셨다.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 심판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듯 성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났다. 안식일 법도 마찬가지이다. 배고픈 사람, 손 마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정신임에도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기관은 주님의 가르침을 매우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것이다. 이에 주님은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나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표현해 보세요.

[나눔] 최근 말씀을 읽고 묵시 기뻐거나, 마음이 절렸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 나눔

주일 말씀 [가장 으뜸 되는 계명 / 마가복음 12:28-34]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시다.

### 기도

**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힘써 알아가며, 그에 걸맞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소서.

**바른 행함**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